

정의와 행복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학자왕

고려대학교 손병석 교수

플라톤(Platon 427-347 BC)

< 국가: 정의에 관하여 > (Politeia: peri dikaion)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학자왕

- 왜 철학자-왕인가?
- 정의요구 원리: 강제에 의한 통치업무의 정당성??
- 철학자 왕은 행복할까?

강 의 순 서

I. 정의(dikē)의 어원

II. 헤시오도스, 호메로스 정의관

III.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 정의관

IV. 이상국가와 철학자 왕의 통치

V. 플라톤 정치철학의 현재적 적실성

◆ 정의(正義, justice, iustitia)의 어원

- **dikē**(δίκη), **dikaio****synē**(δικαιοσύνη)

<- dichazō (διχάζω)

둘로 나누다(divide in two)

◆ 정의와 인간의 실존적 상황

- 무한한 물질적 재화?
- 이타적?
- 인류 최고의 창안품

문명인 vs 야만인(Barbaroi)

“ 퀴클롭스(Kyklōps)는 의논을 할 수 있는 어떤 광장(agora)도 정의(themis)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산꼭대기 동굴에 살면서, 각자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에게 법규를 정해주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무관심하다”
(*Odysseia*, 9. 112-115)

•

“ 왜냐하면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는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nomos)과 정의(dikē)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되기 때문이다. 불의로 무장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가장 사악하다. 인간은 실천적 지혜(phronēsis)와 덕(aretē)을 위한 무기들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것은 그러나 너무나 용이하게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덕이 없으면, 인간은 가장 불경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색욕과 식욕과 관련해서 최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dikaiosynē)가 폴리스적인 것(politikon)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정치 공동체의 질서(taxis)가 되며, 정의는 무엇이 옳은가를 가려주기(krisis)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Politica*, 1253a29-39)

부정의(adikia)를 당했을 경우 정의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 부정의를 당했을 경우 정의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 자력구제(自力救濟, self-help)의 가능성

-> 사회적 통제 기능의 작동여부

- aidōs(shame)

- theos(Zeus) - basileus(king)

- nomos(law) - timoria

◆ 호메로스 일리아스 <Ilias> 재판과정 묘사

“한편 백성들은 회의장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곳에는 시비가 벌어져 두 사람이 죽은 사람의 피 값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백성들에게 내보이며 대가를 다 치렀다고 주장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시비를 가리고자 했다. 백성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각기 자기편을 성원했고, 전령들은 백성들을 제지했다. 한편 원로들은 반들반들 깎은 돌 들 위에 신성한 원을 그리고 앉아, 목소리가 우렁찬 전령들에게서 손에 흠을 받아 들었다. 그들은 흠을 들고 벌떡 일어나 차례차례 판결을 내렸다. 그 한가운데에는 황금 두 탈렌트가 놓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에게 줄 것 이었다”(<일리아스>, 18권, 495-505)

헤시오δος(Hesiodos, 740-670 B.C)

• <일과 날들>(Erga kai Hemerai)

Zeús άνθρωποισι δ' ἔδωκε **δίκην**,

ἢ πολλὸν ἀρίστη γίγνεται, 279-280



” 오! 페르세스야, 너는 이 점을 명심하고 dike(정의)에 귀 기울이고 hybris(오만함, 폭력)을 삼가라 . 크로노스의 아드님은 인간들에게 그런 법을 주셨기 때문이다.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날개 달린 새들은 그들 사이에 정의가 없어 그분께서 서로 잡아먹게 하셨으나, 인간에게 많은 것 중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이 되는 정의를 주셨다(ἀνθρώποισι δ' ἔδωκε δίκην, ἢ πολλὸν ἀρίστη γίγνεται) 왜냐하면 누가 옳은 것을 알고 말하면 그에게 멀리 보시는 제우스께서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거짓 맹세를 하여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하고 정의를 해치고자 하면 그는 구제할 길 없이 미망에 빠질 것이며 그의 집안은 장차 더욱 희미해질 것이고, 반면에 정직하게 맹세한 자의 집안은 장차 더욱 더 번창할 것이다” (<일과 날들>, 275-285)

“ 마지막에는 dike가 hybris를 이긴다. 그런데 바보는 꺾고 나서야 깨닫는다.
Dike가 유린당하고 있을 때 비탄소리가 있다. 선물을 좋아하는 자들이 굶은
dike들으로써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녀는 흐느끼면서 폴리스와 사람들의 거처
를 따라다닌다---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신 제우스께서 dike를 정해 놓으셨다.
종종 폴리스 전체가 그릇되고 사악한 일을 저지른 악한 사람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하늘로부터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께서 그들에게 재앙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신다. 백성들은 멸망한다. ”(213-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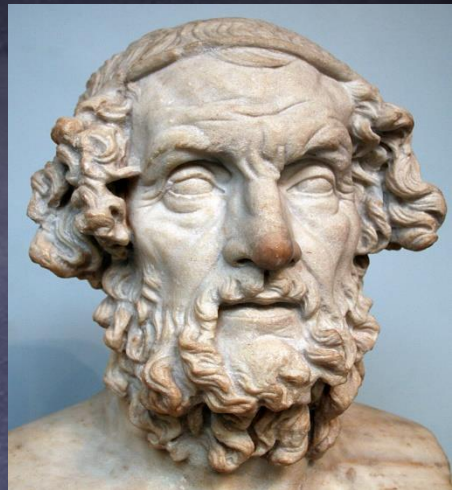
제우스의 정의



호메로스(Homeros, B.C 8) 정의관

<일리아스>(Ilias)

<오뒤세이아>(Odyseeia)



The Late Aegean Bronze Age

cities & palaces 1250-1000 BCE



아킬레우스의 분노(mēnis)와 제우스의 정의(dikē)

“ 여신이여, 분노를 노래하소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것은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영혼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들을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 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Διὸς δ' ἔτελείετο βουλή,)”(Ilias, I.1-5)

제우스가 없는 시대의 정의는 ?

플라톤(Platon 427-347 BC)

< 국가: 정의에 관하여 > (Politeia: peri dika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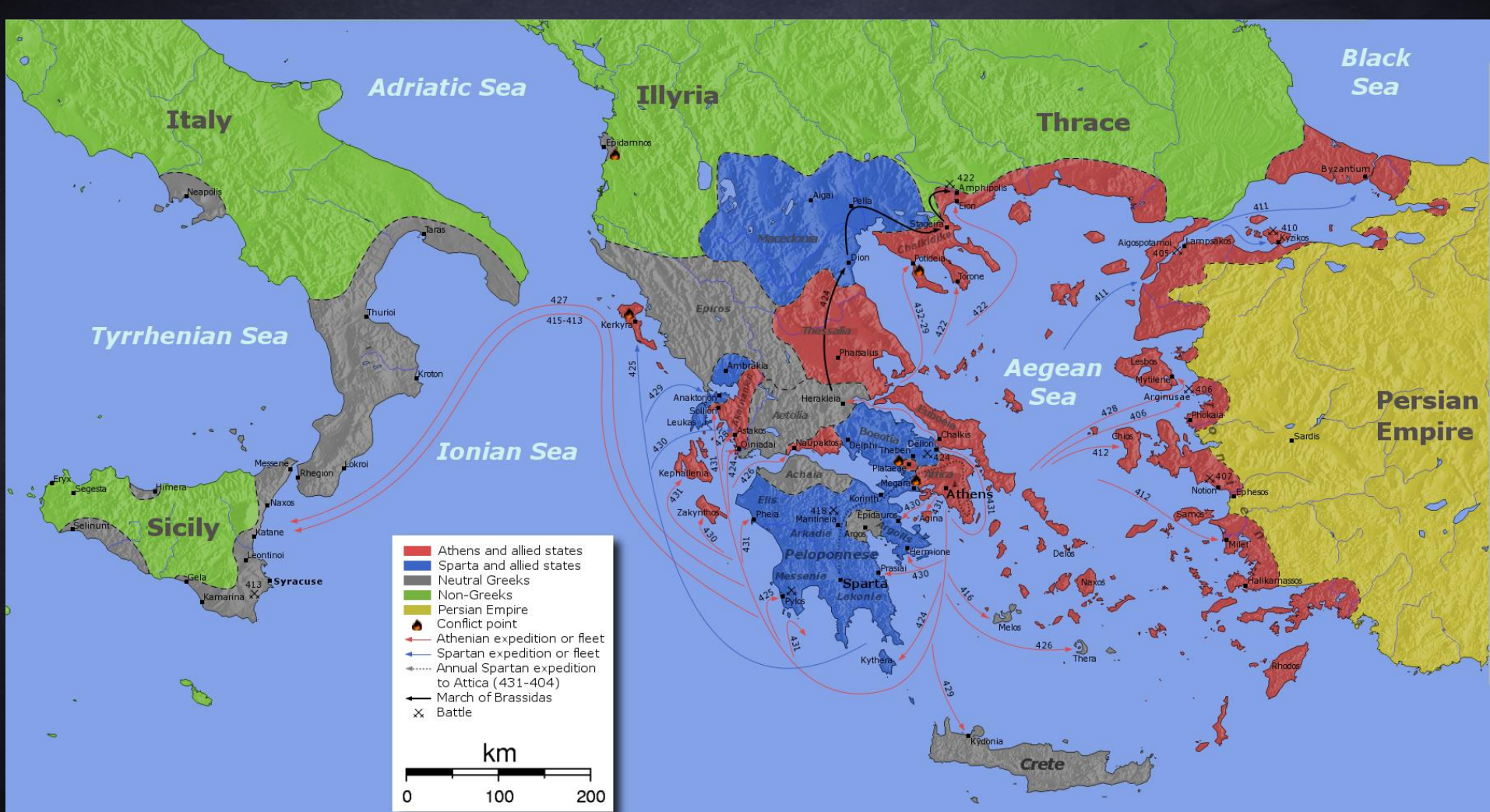


◆ 이상주의자? 비현실적, 비생산적 정치철학?

- 정의로운 인간= 영혼의 정의=행복한 인간
- 철인왕 통치: philosopher-kings-queens
- 인간본성 무지: 처자공유제, 사적 소유금지

◆ 플라톤과 당시의 정치, 현실적 상황

- B.C 431-404 : 펠로폰네소스 전쟁
- B.C 411, 403, 401: 세번의 정치적 지진
- B.C 399 소크라테스 죽음
- B.C 387 시라쿠사이 정체 방문



두개의 정의관

1.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의 정의(to dikaion)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to tou kreittonos sympheron, 338c)

2. 소크라테스의 반론

“ 정의는 대상(피치자=약자)의 이익이다“

정의=행복=이익=강함

◆ 누구의 정의론이 맞는가?

글라우콘의 도전: 정의자체의 좋음 논증요청

◆ 정의는 어떤 좋음에 속하는가?

(1) 자체적인 좋음: 즐거움

(2) 자체적으로 좋으면서 결과도 좋음: 건강, 지식(Sokrates)

(3) 결과적인 좋음: 훈련, 치료(Glaukon)

글라우콘의 주장

- 정의는 **결과적인 이득** 때문에 추구되는 것이다.
- 아무도 **자발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귀게스(Gyges)의 반지





Woody Allen, <Crimes and Misdemeanors>

CRIMES AND MISDEMEANORS



CAROLINE AARON ALAN ALDA
WOODY ALLEN CLAIRE BLOOM
MIA FARROW JOANNA GLEASON
ANJELICA HUSTON MARTIN LANDAU
JENNY NICHOLS JERRY ORBACH
SAM WATERSTON "CRIMES
AND MISDEMEANORS"

JACK ROLLINS : CHARLES H. JOFFE PRODUCTION
CASTING BY JULIET TAYLOR COSTUME DESIGNER JEFFREY KURLAND
EDITOR SUSAN E. MORSE A.C.E. PRODUCTION DESIGNER SANTO LOQUASTO
EXECUTIVE PRODUCERS JACK ROLLINS DIRECTOR OF PHOTOGRAPHY SVEN NYKVIST A.S.C.
AND PRODUCED BY CHARLES H. JOFFE AND DIRECTED BY ROBERT GREENHUT
WRITTEN AND DIRECTED BY WOODY ALLEN EDITOR BY DELUX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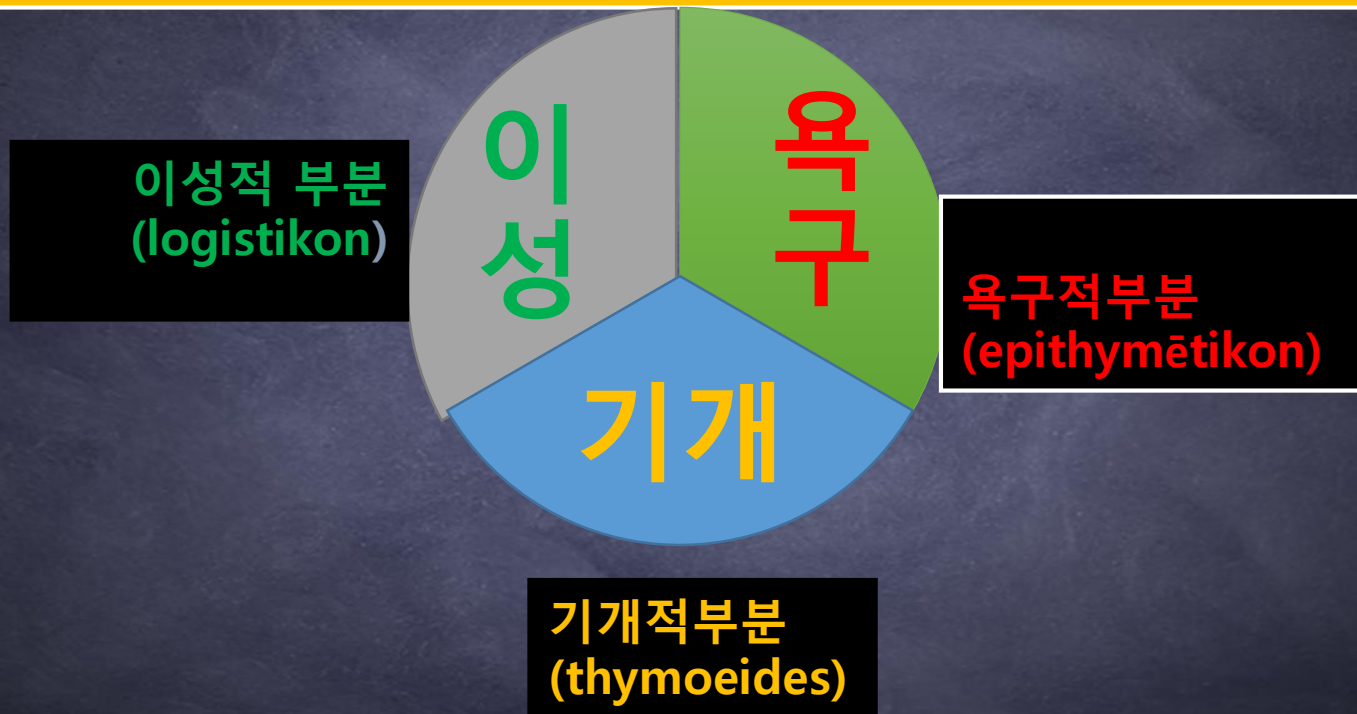
ALL ORION PICTURES RELEASE © 1989 ORION PICTUR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영혼과 국가의 정의(dikaiosyne)

개인영혼
(psychē)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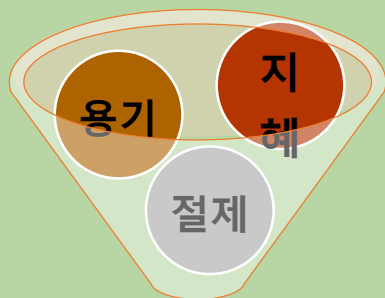
국가(polis)의
정의

영혼 삼분설 (Tripartition)
정의(dikaiosyne) : 영혼의 건강함



정의(dikaiosyne)

☞ 정의 = '자기의 일을 하는 것' (to ta hautou prattein)



↓
정의

이성(지혜)
logistikon



통치자

기개(용기)
(thymoeides)



군인, 전사

욕구(절제)
(sophrosyne)



생산자
(모든 구성원)

- 이상국가와 철학자-왕

정의로운 국가(dikaia politeia)=아름다운 국가(kallipolis)



“철학자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왕이 철학자가 되어, 그래서
정치권력과 철학이 합쳐지지 않는 한 나라 전체의 악이 사
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Politeia, 451d-456e)

“철학자들(hoi philosophoi)이 국가에서 왕들로서 통치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이른바 왕 또는 최고 권력자들로 불리는 자들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정치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지는 않는 한, 또한 다양한 성향들이 지금처럼 그 둘 중의 어느 한쪽으로 따로 따로 향해가는 상태가 강제적으로라도 저지되지 않는 한, 여보게나 글라우콘, 내가 생각하기엔, 정체에 있어서나 인류에게 있어서나 악한 것들의 종식은 없다네” (473c-e)

“ἐὰν μή, ἢν δ' ἐγώ, ἢ οἱ φιλόσοφοι βασιλεύσωσιν ἐν ταῖς πόλεσιν ἢ οἱ βασιλεῖς τε νῦν λεγόμενοι καὶ δυνάσται φιλοσοφήσωσι γνησίως τε καὶ ἱκανῶς, καὶ τοῦτο εἰς ταῦτόν συμπέσῃ, δυνάμεις τε πολιτικὴ καὶ φιλοσοφία, τῶν δὲ νῦν πορευομένων χωρὶς ἐφ' ἑκάτερον αἱ πολλαὶ φύσεις ἐξ ἀνάγκης ἀποκλεισθῶσιν, οὐκ ἔστι κακῶν παῦλα, ὧ φίλε Γλαύκων, ταῖς πόλεσι, δοκῶ δ' οὐδὲ τῷ ἀνθρωπίνῳ γένε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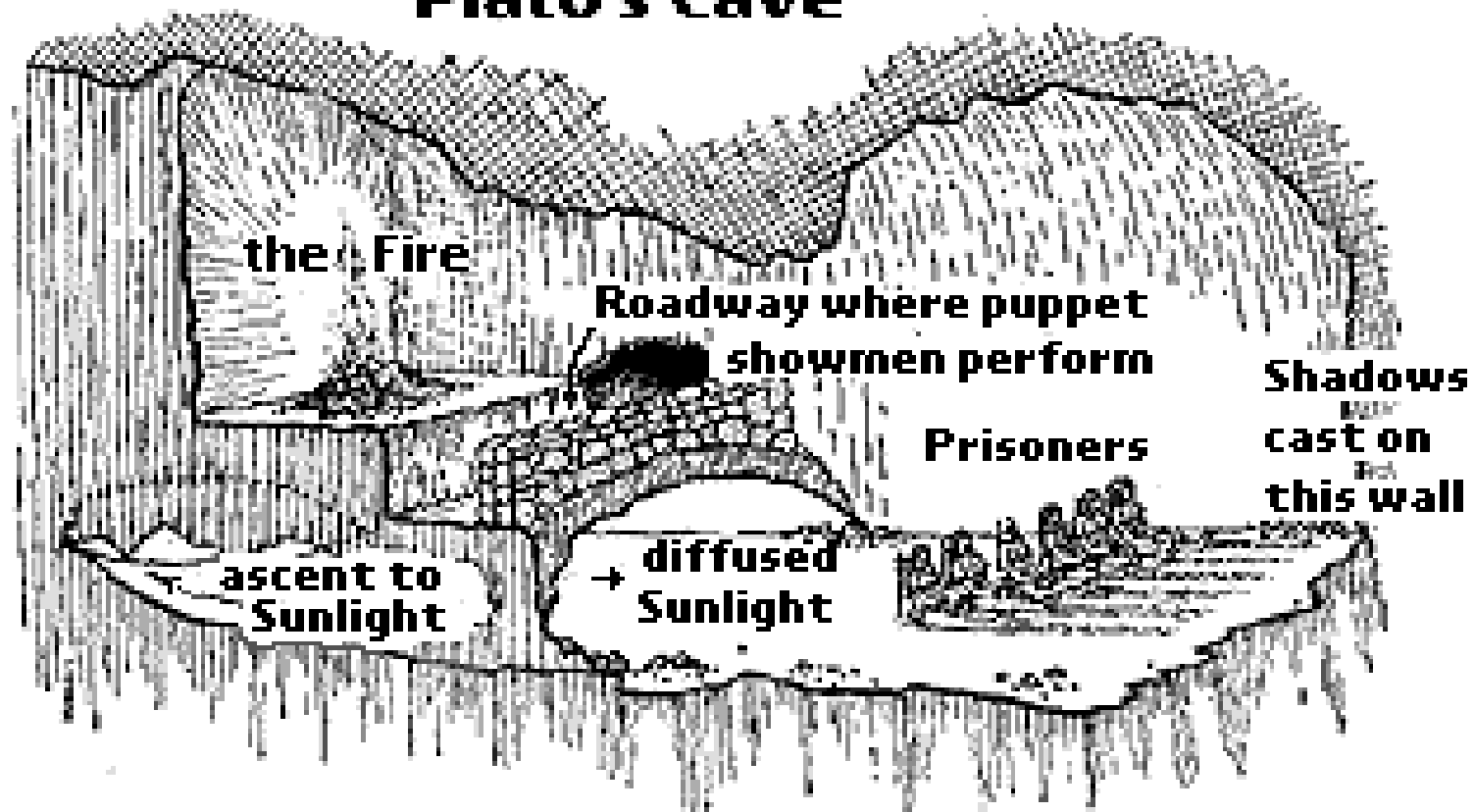
• 왜 철학자 왕인가?

- 좋음의 이데아(idea tou agathou)
- 관조적 삶(theoretikos bios)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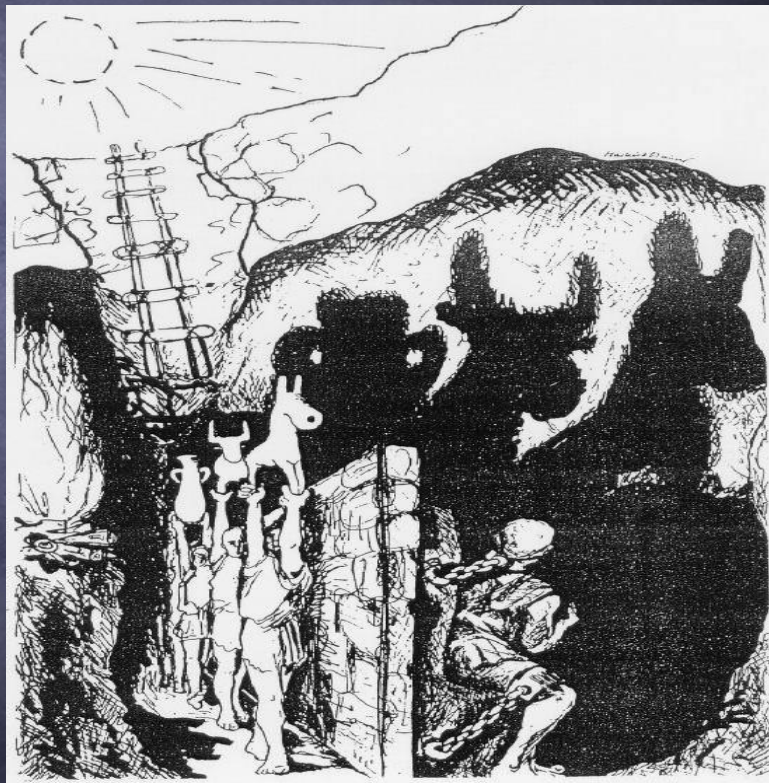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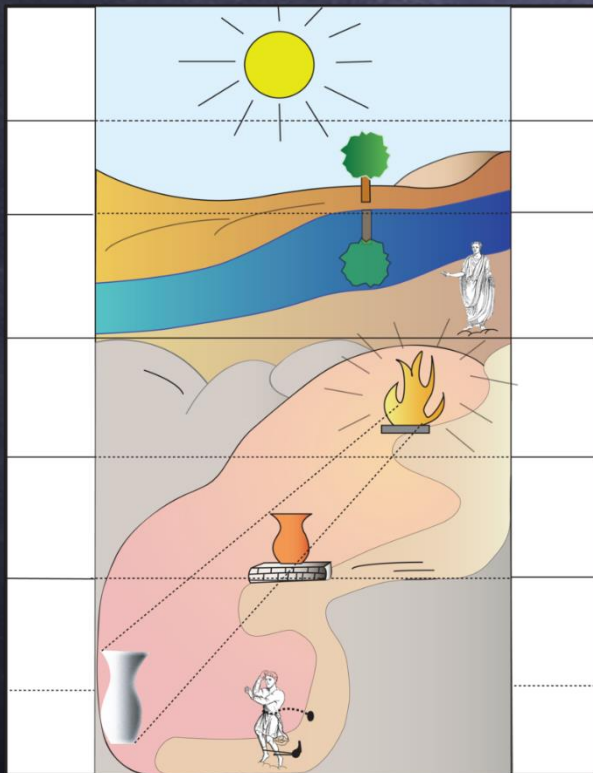
•

동굴 비유와 영혼의 전회(psyches periagōgē)

Plato's Cave



동굴의 비유: <국가>편 7권



- 다시 동굴안으로, 씹쓸한 웃음의 의미

- 자기애(self-love) vs 이타애(altruism)
- 관조적 삶(theoretikos bios) vs 정치적 삶(politikos bios)
- 영혼의 정의 vs 국가의 정의

소크라테스: “정체의 수립자들인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의 성향을 지닌 자들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것에 대한 배움에 이르도록, 그래서 좋음을 보게끔 오르막을 오르게 하되, 이들이 이 길을 올라 그것을 충분히 보게 되면 이들이 허용받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이들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글라우콘: “우리가 그들을 부정의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때 그들을 더 나쁜 삶을 살도록 하면서 부정의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국가> 519c-d)

소크라테스: “여보게 자넨 또 잊었네. 법(nomos)은 국가의 어느 한 부류가 특별히 잘 살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국가 전체가 이것이 잘 실현되도록 강구하는데 관심을 갖네. 법은 시민들을 설득과 강제에 의해 화합하게 하고 각자가 공동체에 이롭도록 해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네.”(<국가> 519e-520a)

“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통치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라고 한 것처럼, 서로들 암투를 하며 반목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네.
그러나 아마도 진실은 이런 것이네. 한 국가에 있어서 **장차 통치하게 될
사람들이 통치하기를 가장 덜 열망하는** 그런 국가가 가장 잘 그리고 제일
반목하는 일이 없이 다스려지는 게 필연적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자들을
통치자들로 갖는 국가는 역시 반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필연적이네”

(<국가> 520c-d)

“ 만약에 통치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앞으로 통치하게 될 사람들에게 찾아준다면, 잘 통치되는 나라가 가능하게 될 걸세. 이런 나라에서만 참으로 부유한 자들, 즉 황금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행복한 자들이 마땅히 풍부하게 갖고 있어야 할 선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풍부한 자들이 통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네.--- 그러나 거지들이 개인적으로 좋은 것들에 허기진 자들이 공적인 일들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그런다면 그런 나라가 실현될 수는 없네.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런 싸움은 동족간의 내란으로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키기 때문일세”

(<국가> 521a-b)

“ 자넨 정치적인 관직을 깔보는 삶으로서 **참된 철학자의 삶**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가? ---

진실은 통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치에 임하도록 해야만 하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경쟁자들이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네.---

국가의 수호에 임하도록 자네가 **강요할(anagkaseis)** 사람들로 이들 이외에 누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 521a-b)

강요에 의한 철학자-왕은 행복한가?

최선의 이익?

관조적 활동 > 통치활동

- 강제(anangkē)에 의한 정의요구 원리의 정당성 문제

“철학자가 통치업무를 맡도록 강요 되어야 한다”

“철학자들은 통치에 대한 열망이 가장 적다 ”

1.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았고 그 빛을 갚는 것이 정의다.

2. 열등한자의 통치를 받게 되면 부정의를 당하는 것이다(347c).

“통치를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최고의 벌은 자신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347c3-5)

3. 교대로 통치를 하게 되면 통치이후에 관조적 삶을 향유할 수 있다.

◆ 정의요구원리와 행복원리는 조화될 수 있는가?

- 철학자의 강요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의롭고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통치를 하려고 할 것이다(Annas)
- 법에 의한 강요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교육의 혜택, 은혜를 갚는 것이 정의다, 확장된 이익 (kraut, Brown)
- 열등한 자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통치할 의지를 가진다.
- 통치를 선호할 것인데 통치가 정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행위는 그들의 행복을 구성하기 때문이다(Irwin)
- 강요된 통치이나 통치과정에서 통치의 고유한 이익을 이해하게 된다(P.Vernezze)
- 통치는 철학자들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에 대한 충분한 동기근거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Rosen, Aronson)

◆ 반대 논변

- 강요된 통치에 대한 설명에 실패하고 있다.
- 통치하려고 하는데 왜 강요되어야 하는가?
- 나중에 철학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통치하려고 하지 않으면 열등한 자의 통치를 받게도 되고, 국가의 정의로운 법에 의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적극적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들 각자는 확실히 분명 강요된 어떤 것에 의해 통치하러 간다”(520e2-3).

“철학자들은 가장 적게 통치하려고 할 것이다”(520d2)

◆ 정의와 행복 관계

- 눈(eye) 기능(시력)

눈의 탁월성: 잘 보는 것 = 눈의 건강: 행복

- 인간의 영혼의 탁월성(arete)

인간영혼의 탁월성: 정의 = 영혼의 건강: 행복

◆ 아포리아(aporia)

정의의 요구에 따른 통치업무는 철학자의 행복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가?

영혼의 정의=폴리스적 정의

->

이성의 지배=logistikon, Sophia, episteme

◆ 역설적 주장

“정치적인 관직을 깔보는 삶으로서 참된 철학자의 삶 이외에 다른 것을
덜 수 있겠는가?”(<국가> 521b)

“오늘날 통치를 맡으려는 것이 싸움거리가 되는 것처럼, 서로 통치를 맡
지 않으려는 것이 싸움거리로 될 것 같네. 그리고 이경우에 진실로 ‘참된
통치자’(alethinos archon)는 본성상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통치를 받는 쪽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네
”(347d)

철학자의 관조적 행복과 통치자의 정치적 삶의 긴장관계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남는 물음들

◆ 누구의 정의론(whose justice)인가?

현실적 정의론 vs 당위적 정의론

◆ 최선정체는 철학자왕과 같은 영혼의 소유자를 필요로 하는가?

왕정, 귀족정(이성적인 부분)-> 명예정(기개적인 부분)-> 과두정(욕구적 부분)

-> 민주정(욕구적 부분)-> 참주정(욕구적 부분)

◆ 현대의 민주정체에서 가장 정의로운 자가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 누가 철학자-왕을 만들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